

[가정공동체축제] 요셉과 마리아

[본문: 마 1:18-25]

하용조 목사 / 온누리교회 / 1999 / 페이지수: 4

성경에는 여러 부부의 모델이 나옵니다. 아담과 이브는 최초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부부로 이들은 두가지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찾아야할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과 이 땅에 죄를 오게했던 부부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 부부의 양면성입니다.

부부관계의 열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부부생활, 가정생활, 자녀교육에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부부관계의 열쇠는 '인격적'이라는 말에 있습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많은 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항상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구분되지만 부부는 한 몸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남자는 남자요, 여자는 여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여자가 남자의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남자의 종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남자의 뼈중의 뼈요, 살중의 살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온누리교회의 많은 남편들이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인정하고 감싸주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이 땅에 오게 한 부부입니다. 그러나 이 부부에게도 위기는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몸종 하갈에게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지혜롭게 그 아이를 키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끝까지 붙잡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그 위기 속에서 사라의 말을 듣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일이 있어도 사라의 말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이 부부가 끝까지 약속을 믿어 축복을 얻게 됐던 중요한 원인입니다.

다윗과 밧세바는 불륜으로 맺어진 비극적인 부부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통해 실수로 인해 불륜으로 만난 부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부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호세야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고멜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음란한 행동을 일삼는 고멜을 버리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여자가 비록 불륜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용서하고 받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마리아

마리아와 요셉 부부는 배울 점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 처녀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순간이 정혼한 상태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35절 말씀을 비롯해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마리아가 동정녀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이땅에 오게한 마리아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를 잉태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결혼을 했던 하지 않았든 하나님은 순결한 사람을 쓰십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30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은혜와 은총을 받았다는 것은 선택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마리아와 같은 조건에 있는 여자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은총’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30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은혜와 은총을 받았다는 것은 선택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마리아와 같은 조건에 있는 여자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은총입니다.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부관계와 만남이 하나님이 주신 은총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리아에게서 발견되는 특징은 순종입니다. 마리아는 임신을 하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들었을 때 그녀는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38절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누가복음 1장 46절~48절을 보면 마리아는 자신의 신분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에게서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마리아에게서 배우는 것은 감사입니다. 순결, 은총, 순종, 겸손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있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마리아의 최대의 고난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박혀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혀 죽을 때 마리아는 십자가의 현장까지 쫓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빈 무덤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다락방에서 시도했던 사람 중에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귀엽고 아름답고 사랑받을 만한 여자였습니다. 온누리교회 모든 여성들이 이런 여성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게 했던 또 한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처럼 유명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끝까지 등장하지만 요셉은 적당한 시점에서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쓰신 요셉

마태복음 1장 19절을 보십시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하여』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요셉은 얼마나 고민하고 번민했겠습니까? 당시의 율법으로는 돌로 쳐 죽여야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에게 수치를 주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요셉은 참으로 가슴이 넓은 남자입니다. 성경도 이 사람을 멋진 남자요, 남자다운 남자요, 의로운 남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줄 아는 남자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마리아와의 혼인을 조용히 끊고자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입니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요셉은 순종했습니다. 순종은 기적을 낳고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룹니다. 또한 25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요셉은 경건하게 지냅니다. 요셉에게 배울 점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내 혼자 아이의 양육을 책임지게 하는 남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예수님의 양육에 마리아와 같이 책임을 졌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 모든 지경 안의 2살 미만의 아이를 다 학살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천사의 말을 들은 요셉은 자기 아내와 예수님을 데리고 피난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십시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좋은 부모 밑에서 인격적으로 상처없이 잘 자라고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요셉은 예수님의 공생애 초기 이후에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의 무대에서 요셉은 소리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요셉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즈음에 죽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도, 빈무덤에도, 요셉은 없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사실에서 우리는 마리아가 과부였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게 부탁하지 않으셨다는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에서 마리아와 요셉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한 부부는 될 수 없지만 땅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부부는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순결과 은총과 겸손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마리아, 그리고 진정으로 아내를 돌볼 줄 아는 의로운 남자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끝까지 자신의 역할을 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졌던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꼭 부부만이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홀로된 마리아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였습니까? 우리는 부부로도, 홀로된 사람으로도 일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요셉과 마리아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 순결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동정녀였고 요셉은 의로운 남자였습니다. 요셉은 여자의 수치를 감싸주고 덮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깨끗한 인격과 순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의 공통점은 순종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제안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도 마리아를 오해하고 끊으려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한 권면을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사생아 취급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셉도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마리아와 예수님을 돌보는 겸손이 있는 사람입니다. 남을 돌보는 사람은 자신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남을 절대로 돌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돌봄을 받기만을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부입니까? 만약 혼자 사신다면 당신의 삶은 어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한 부부는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땅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부부는 될 수 있습니다.

* 출처 : 온누리신문